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청사진

지건길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박물관은 세계 문화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자신의 위상을 인식할 수 있는 문화의 산교육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박물관 문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우리 손으로 직접 지어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박물관 문화의 지진함을 씻고자 국민적 여망에 힘입은 정부의 의지로 우리 손으로 박물관의 탄생을 기획하게 되었다.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건립사업은 1993년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던 국립중앙박물관을 철거하고, 서울시 용산구 현 용산가족공원에 새로운 국립중앙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수립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94년 2월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사무국'이 발족되어 박물관 건립을 향한 본격적인 작업을 착수하였다. 1997년 10월에 착공하여 2003년 12월에 문을 열게 될 새 국립중앙박물관은 국제 설계경기의 당선작품을 기본으로 설계되었는데 9만 3천평 대지위에 연면적 4만평,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물 길이 404m, 폭 넓이 138m, 높이 43m의 웅대한 건물이다.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건물은 잔잔한 맑은 물에 박물관의 웅장한 자태가 반사되는 '거울못', 전통가옥의 대청마루를 본 따 안팎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열린마당', 창호지문이 문 밖의 빛을 건물 안으로 초대했던 것처럼, 실내에 자연의 빛이 깊숙이 들어오게끔 설계한 로툰다와 천창은 새로 건립될 국립중앙박물관의 빼놓을 수 없는 건축적 특징이다.

박물관 건물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지상에는 중앙의 열린마당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지는데 동쪽에는 전시동, 서쪽에는 사무동과 어린이관, 기획전시실이 있으며 지하에는 수장고, 기계실, 교육동, 사무동 등이 위치한다.

동쪽 전시 1층에는 중앙의 '역사의 가로'를 중심으로 그 좌우에 역사영역과 고고영역이, 전시 2층에는 미술영역과 기증영역이, 전시 3층에는 미술영역과 동양영역이 각각 위치한다. 전시 규모에서 보면 7영역 41실 6,262평, 전시유물 14,000여점으로 현재의 박물관 4영역 19실 1,970평, 전시유물 5,099점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된 세계 최고의 박물관에 걸맞는 규모이다.

지금까지의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체계는 역사, 고고학과 미술사가 혼재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새 국립박물관은 각 영역별로 구분된 전시공간을 기획하였다. 전시의 기본성격은 한국 문화와 역사의 특수성과 세계 문화와 역사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큰 의미를 두어 역사적 배경과 주변 국가들의 문화와의 관계 등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역사영역은 우리 전체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며 고고, 미술 등의 나머지 영역은 명품을 주제별로, 탐미적으로 감상하는 동시에 역사영역과 다른 영역을 서로 연계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역사영역(1,330평, 전시유물 930여점)은 전시 1층의 북쪽에 위치하며 국립박물관의 총론적이고 introduction적인 성격을 가지는 전시공간이다. 전시는 현재 동아시아 지형의 형성과 인류의 탄생부터 1948년 남북한의 정부 수립까지를 8개의 시대(도입부-민족의 여명기-선사시대-금속문화의 전래와 국가의 형성-

삼국시대-통일신라와 발해-고려시대-조선시대-근현대-에필로그)로 구분하여 통사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역사의 흐름에 따른 문화·기술·경제·사상 등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게 되어 보다 교육적이면서 유물과 전시 보조물, 영상물, 모형 등의 전시보조물을 이용하여 흥미롭고 재미있는 현장교육의 장소가 되도록 기획하였다.

고고영역(950평, 전시유물 4,810여점)은 기존 박물관의 시나리오성이 강한 통사적 전시방법을 지양하고 유물 전시위주, 특히 명품위주의 전시를 기획하였다. 전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고대국가 형성기, 삼국시대, 통일신라의 시대별, 지역별, 물질별, 테마별 구성으로 하여 각 시대의 문화특성과 의미를 부각시키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고고유물의 사실을 입증해 주는 자료로서의 역할과 함께 그 미적인 측면을 감상할 수 있도록 미술관식의 전시기법을 도입하며 역사실과 연계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술영역(1,652평, 전시유물 2,080여점)은 한국의 전통 미술의 정수를 보여 주기 위한 전시공간으로, 전시 2층과 전시 3층의 북쪽에 위치한다. 전시 2층에는 서화류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서예실, 회화실, 불교회화실이 있으며 전시 3층에는 공예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도자공예실, 금속공예실, 불교조각실이 있는데 각각의 주제별로 독립적인 전시실로 구성되었다. 전시공간은 관람객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여유있게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실 환경을 기획하였다.

기증영역(832평, 전시유물 1,380여점)은 전시 2층에 위치하며 이우씨실, 하찌우마실, 동원실, 수정실, 김중학실 등 7개의 전시실과 1개의 시청각실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는 격조 높은 문화재를 국가에 기증한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시로 기획하였다.

동양영역(743평, 전시유물 2,100점)은 전시 3층에 위치하며 인도실, 동남아시아실, 중앙아시아실, 중국실, 일본실 등 5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문화는 그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주변국가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하였는 바, 다양한 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독창성을 비교 전시하는 전시함으로써 세계속에서 한국을 인식하고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도록 기획하였다.

기획전시실(536평)은 전시 1층에 위치하며 크고 작은 2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다. 기획전시실은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대·소규모의 전시를 위한 가변성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어린이관(217평, 전시유물 550점)은 전시 1층에 위치하며 크게 체험과 전시공간, 교육공간 그리고 도서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린이관의 최우선 목표는 직접 체험과 참여를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만의 독립적인 공간이면서도 주 박물관의 역사실과 고고·미술유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으로 기획하였다. 전시는 새로운 전시연출과 전시매체를 도입하여 어린이들이 보고, 만지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흥미로운 역사학습의 새로운 공간으로 기획하였다.

새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순한 유물의 전시기능을 벗어나 모든 국민과 외국인이 찾는 공간으로서 각종 놀이문화와 전시회가 열리는 야외 공연장 및 전시장, 영화 및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극장,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이 가능한 도서관, 교양 강좌가 열리는 교육장, 관람 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실내외 카페테리아, 탁 트인 야외 공간에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 넓은 주차장 등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새 국립중앙박물관은 5천년의 문화유산을 보존 전시하는 역할뿐 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심층적 조사 연구 기관이며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문화의 산교육장, 그리고 우리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국제문화교류의 장으로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우리의 생활과 함께 호흡할 것이다.

새 국립중앙박물관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 통일 한민족시대에 대비하여 5천년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에 부합함은 물론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을 보존, 연구, 전시, 교육할 수 있는 전당이 될 것이다.